



numbers
vol. 247

미주 한인교회 실태와 미래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 '다인종(Multi-Ethnic) 수용'이 관건!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한국의 자영업 실태
- ② 한국인의 조력 존엄사 인식

2024. 7. 9.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 '다인종(Multi-Ethnic) 수용'이 관건!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가 1903년 호놀룰루 항구의 한 주택에서 드린 예배를 미주 한인교회의 시작으로 보면 미주 한인교회는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미주 한인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이민자 중심인 1세대 교인에 이어 2, 3세대로 이어지는 세대교체이다.

이번 조사는 미주 한인교회 성도와 EM사역자 대상으로 교회생활과 신앙 인식, 영어 사역(EM)의 실태와 인식 등을 통해 미주 한인교회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주요 결과를 보면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현장 예배 참석률이나 소그룹 활동 등 교회에 대한 관여도는 한국교회보다 크게 높았으며, 영적 갈급함 또한 높았다. 하지만 한국어 사역(KM)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았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시대에 맞는 혁신/패러다임 변화를 교회가 추구하는 한편, 아시아인 중심의 다인종을 얼마나 수용하는가를 향후 발전의 관건으로 보았다.

세대 차이와 갈등, 교세 감소, 변화 요구 등 미주 한인교회가 처한 상황은 넓게 보면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주 한인교회의 변화에 대한 모색이 한국교회에도 도전이 되길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4 미주 한인교회 교인/EM사역자 조사

조사개요

구분	미주 한인교회 교인 조사	EM사역자 조사
조사 대상	미주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미주 한인교회의 EM사역자, EM사역 경험자
조사 지역	LA, 뉴욕/뉴저지, 시카고, 기타(아틀란타 등)	
조사 방법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를 통한 스노우볼링 방식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표본 규모	1,169명(유효 표본*) - LA : 740명 - 뉴욕/뉴저지 : 329명 - 시카고 : 44명 - 기타(아틀란타 등) : 56명 (총 67개 교회)	83명(유효 표본) - LA(33명) - 뉴욕/뉴저지(33명) - 기타(17명)
조사 기간	2024년 2월 13일 ~ 3월 12일 (29일간)	2023년 3월 8일 ~ 4월 11일 (35일간)
표본 추출 방법	편의 추출 (Convenience Sampling)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주체	CTS America (뉴욕 후러싱제일교회 후원) / MICA / AEU 미성대학교	
조사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Fieldwork : ㈜지앤컴리서치)	

*목회데이터연구소의 『2023년 한국인 종교분포 및 종교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성/연령별 가중치 부여.
일부 교회의 응답 편향(과표집)을 방지하기 위해 30표본 이상 응답된 교회의 응답 수를 30으로 고정하여 가중치 부여. (가중적용 사례수 6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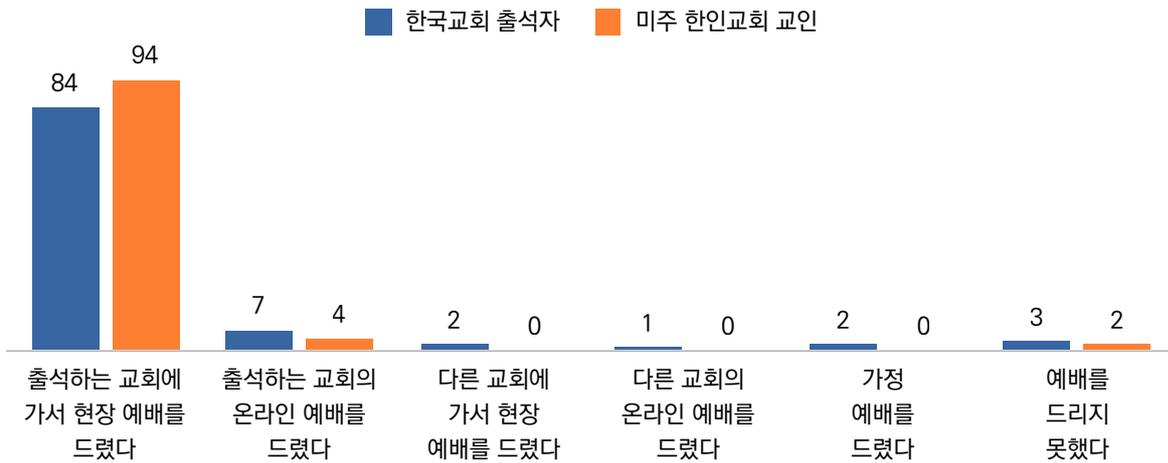
01

[예배와 신앙생활]

미주 한인 교인, 현장예배 참석률 한국보다 높아!

-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지난주 주일 예배 형태를 묻은 결과, '출석교회 현장 예배'로 드렸다는 응답이 94%로 대다수였고, '온라인 예배'는 4%에 불과했다.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출석 교회 현장 예배 비율은 한국교회 교인(84%)보다 10%p 더 높아 현장 예배를 중요시하는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지난주 주일예배 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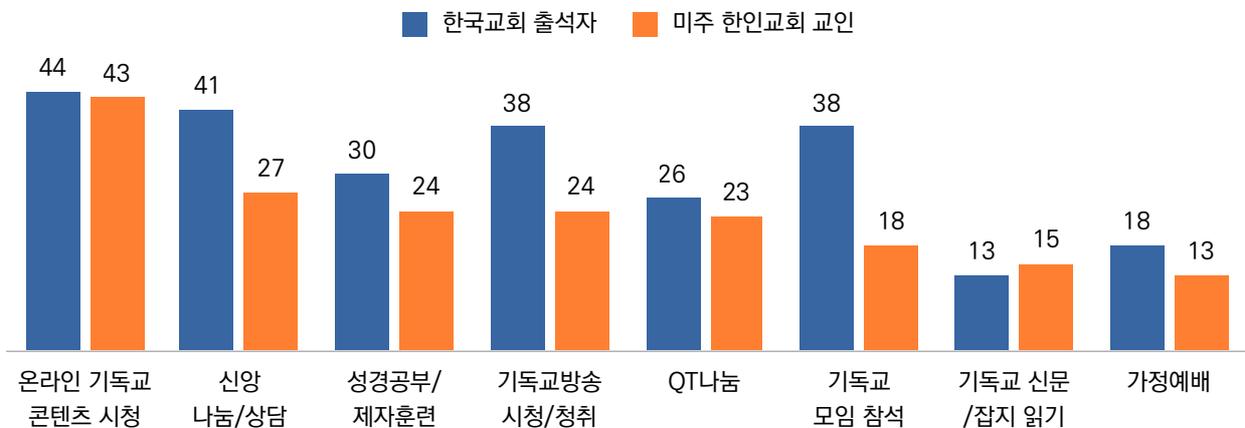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07.(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6.03.)

Note) 본 조사는 한인교회 담임목사를 통한 스노우볼링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주로 소그룹 활동자중심(74%)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한국교인과 비교 시 한국데이터를 소그룹 활동자기준으로 비교하였음.

미주 한인교회 교인, 한국 교인보다 신앙 활동의 다양성 떨어져!

-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지난 1주일간 행한 신앙 활동을 한국 교인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교회 성도 대비 미주 한인교회 신앙 활동이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 시청 등 다양한 신앙 활동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신앙나눔/상담', '기독교 방송 시청/청취', '기독교 모임 참석' 활동에서 두 그룹간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지난 1주일간 행한 신앙 활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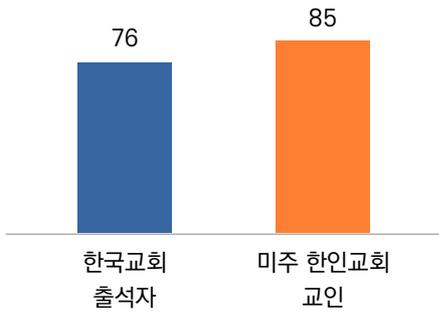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07.(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6.03.)

*한인교회, 한국교회 같은 보기 항목만을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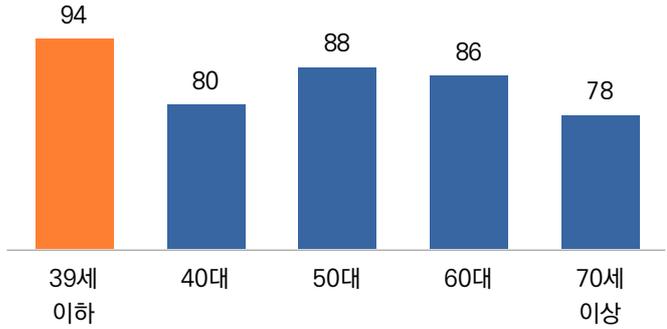
하지만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영적 갈급함, 한국보다 더 커!

- 이번에는 현재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대부분(85%)이 현재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교회 출석자의 영적 갈급함(76%)과 비교했을 때, 미주 한인교회 교인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39세 이하 젊은 층에서 타 연령대 대비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현재 영적 갈급함 인식 ('크게 느낀다+어느 정도 느낀다' 비율*, %)



[그림] 연령별 현재 영적 갈급함 인식 (미주 한인교회 교인, '크게 느낀다+어느 정도 느낀다' 비율*,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07.(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6.03.)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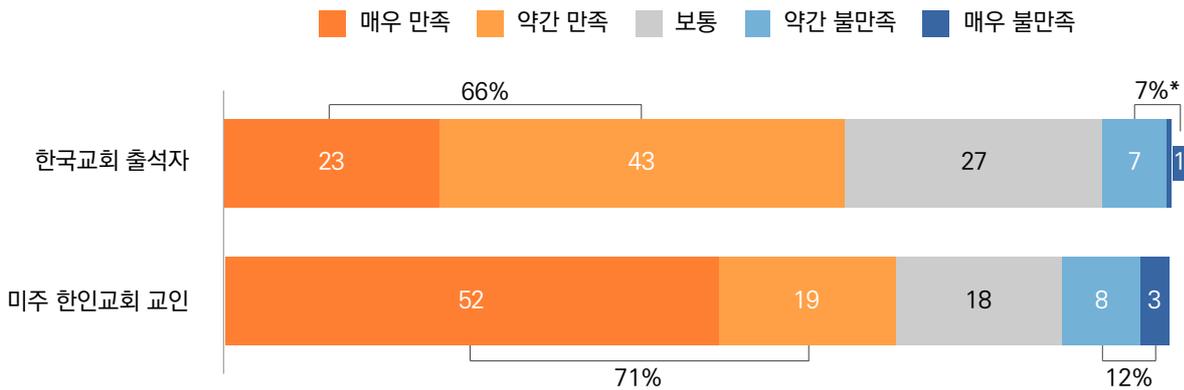
02

[교회 생활과 활동]

교회 만족도, 미주 한인교회 교인이 한국보다 다소 높아!

- 미주 한인교회 교인과 한국교회 출석자의 출석교회 만족도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먼저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경우 10명 중 7명이 현재 출석교회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고, 불만족 비율은 12%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교회 출석자는 66%가 출석교회에 만족하고 있었고, 미주 한인교회 교인보다는 낮은 비율인 7%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그림] 출석교회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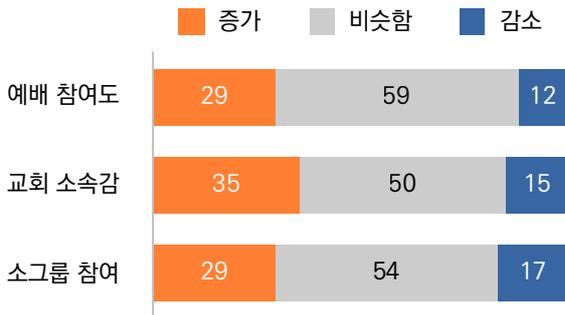
※출처 :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06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출석교인 1,414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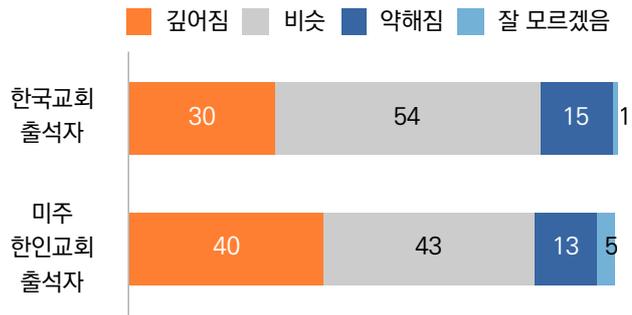
교회 충성도와 신앙심, 코로나 이전 대비 상승!

- 코로나 이전 대비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예배 참여도, 교회 소속감, 소그룹 참여 등 전 항목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생활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신앙 수준을 묻은 결과, 한국교회 출석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깊어짐’ 비율이 30%인 반면, 미주 한인교회 교인은 40%가 깊어졌다고 응답했다. 코로나로 인한 단절이 오히려 교회에 대한 관여도와 신앙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됐음을 유추할 수 있다.
- 한국 교인과 비교해보면,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은 한국 교인들보다 신앙 활동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신앙 깊이는 코로나 이후 오히려 더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생활 변화
(미주 한인교회 교인, %)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 수준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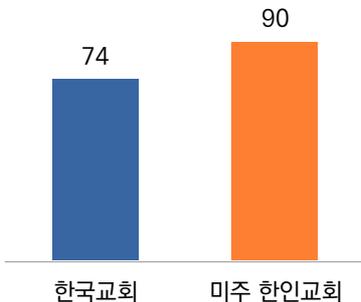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07.(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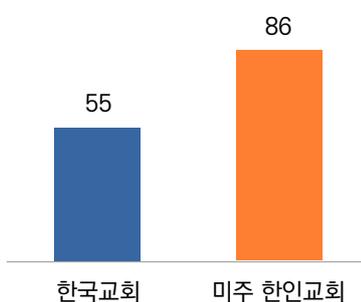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소그룹 활동, 한국보다 활발해!

- 이번에는 한국교회 교인과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소그룹 활동을 살펴보았다. ‘출석교회 소그룹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묻은 결과, 미주 한인교회는 출석 교인의 대다수(90%)가 소그룹 모임에 소속되어 있어 한국교회의 소그룹 소속 비율(74%)보다 높았다.
- 출석교회 소그룹 정기적 참여 비율 역시 ‘미주 한인교회(86%)’가 ‘한국교회(55%)’보다 크게 높아 한국교회보다 훨씬 활발하게 소그룹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출석교회 소그룹 모임 소속 여부
(교회 출석자, %)



[그림] 출석교회 소그룹 정기적 참여 비율
(출석교회 소그룹 참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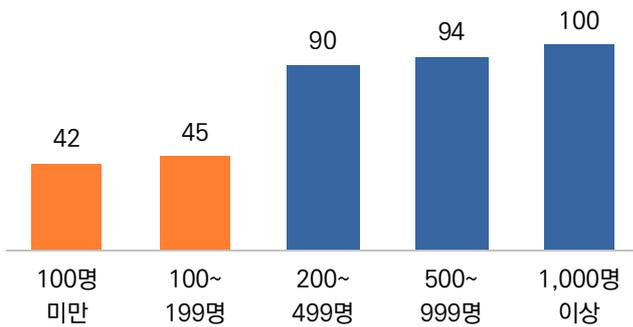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07.(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6.03.)

03

[EM사역 실태] 200명 미만 교회, 절반 이하 'EM부서/예배' 부재!

- 한인교회 사역은 크게 KM사역과 EM사역으로 구분되는데 KM은 Korean Ministry(한국어 사역), EM은 English Ministry(영어 사역)의 약자이다. EM은 영어가 익숙한 한인 1.5세와 2세를 위해 미주 내에서 시작된 예배/사역으로 초기 한인교회 사역에는 EM이 거의 없었으나 1990년대 초부터 해당 사역이 등장했다.
- 미주 한인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현재 출석교회에 EM 부서나 예배가 있는지 물었더니 교회 규모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출석 교인 200명 이상 중대형 교회는 90% 이상 EM 부서/예배가 존재하는 반면 200명 미만은 40%대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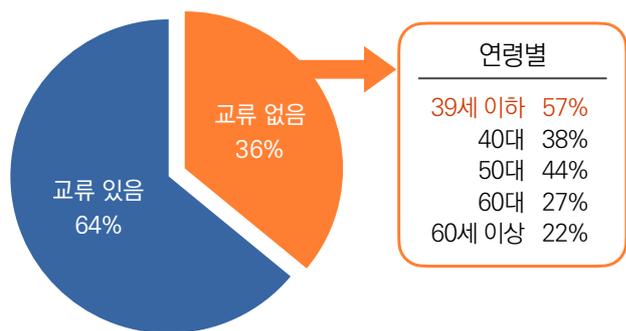
[그림] 교회 규모별 EM 부서/예배 있는 비율 (미주 한인교회 교인, %)



KM/EM간 교류, 젊은 교인일수록 교류 '없다'는 인식 높아!

- 출석교회에서 EM과 KM 간 교류가 어떠한지를 EM사역 부서가 있는 교회 교인에게 물은 결과, 교회 3곳 중 1곳 이상(36%)이 '교류 없다'고 응답했다.
- EM과 KM의 교류 인식은 세대 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39세 이하' 젊은 층에서는 절반 이상(57%)으로 나타났다.

[그림] 출석교회 EM/KM 교류 여부 (EM사역 부서 있는 미주 한인교회 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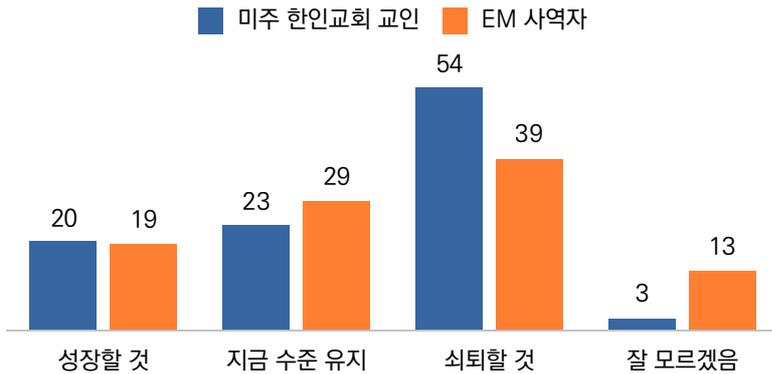
04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

교인과 EM사역자 모두, 10년 후 'KM사역 쇠퇴할 것'!

-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를 교인과 EM사역자는 어떻게 예상할까? 먼저 KM사역의 미래에 대해 앞으로 10년 후 어떻게 될지 예상을 물어본 결과, EM사역자의 39%, 한인교회 교인의 절반 이상인 54%가 '쇠퇴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2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전체적으로 KM이 향후 쇠퇴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림] 10년 후 KM사역 예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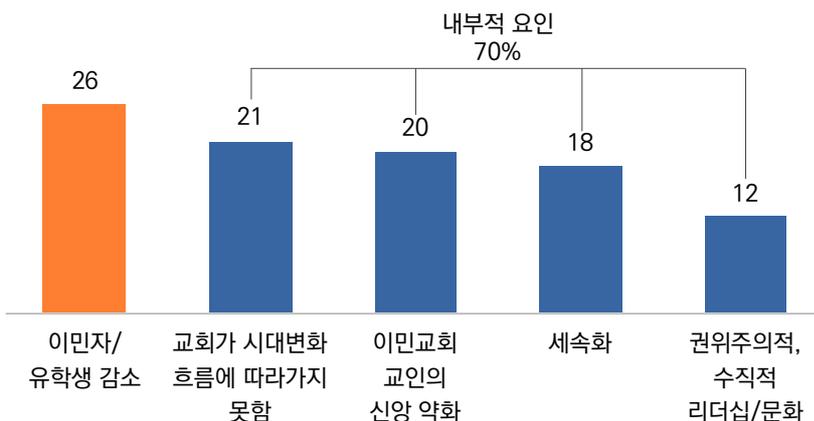


*한인교회 교인에게는 '귀하는 앞으로 10년 뒤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예상합니까?'로 질문함

KM사역 쇠퇴 이유,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 훨씬 커!

- 한인교회의 쇠퇴를 예상한 교인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이민자/유학생 감소'가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교회가 시대변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함' 21%, '이민교회 교인의 신앙 약화' 20%, '세속화' 18% 등의 순이었다.
- '이민자/유학생 감소'라는 외부적 요인을 가장 큰 쇠퇴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시대변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교인의 신앙 수준이 약해지는 등 내부적 요인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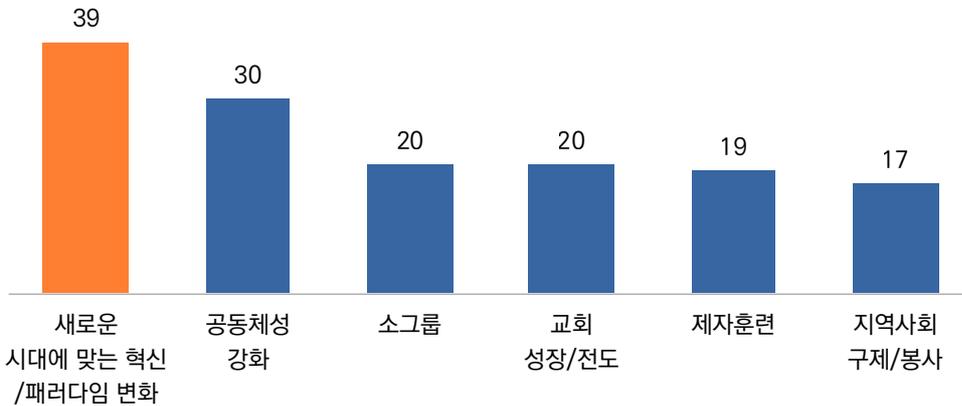
[그림] KM사역 쇠퇴 예상 이유 (한인교회 쇠퇴 예상 교인, 상위 5위, %)



한인교회/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

- 그렇다면 한인교회 교인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패러다임 변화’가 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동체성 강화’ 30%, ‘소그룹’ 20%, ‘교회 성장/전도’ 20% 등의 순이었다.
- 앞서 교회 쇠퇴 요인으로 언급한 ‘교회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세속화’, ‘권위주의’ 등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패러다임 변화’의 기대 욕구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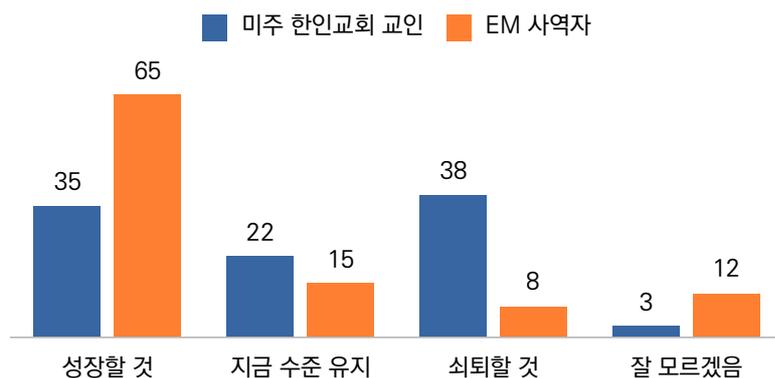
[그림] 교회 및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 (미주 한인교회 교인, 1+2순위, 상위 6위, %)



10년 후 EM사역, EM사역자는 성장 기대감 높아

- 이번에는 10년 후 EM사역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EM사역자의 경우 ‘성장할 것 같다’는 긍정적 예측이 3명 중 2명 (65%) 정도로 가장 많았고, ‘지금 수준 유지’ 15%, ‘쇠퇴할 것’ 8% 순이었다. 반면 한인교회 교인은 ‘쇠퇴할 것 (38%)’이 ‘성장할 것(35%)’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KM사역의 미래 예측과 비교해보면 EM사역이 상대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 높았다.

[그림] 10년 후 EM사역 예측 (%)



EM사역자, 한인교회의 미래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 KM과 EM을 포함한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EM사역자에게 물었다. 그 결과, 지금보다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고, '쇠퇴할 것' 17%, '지금 수준 유지' 13%였다. EM사역자는 한인교회의 미래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EM사역자의 교회 형태별로 응답률을 살펴본 결과, 다인종 수용교회 사역자가 영어권 한인교회 사역자보다 향후 한인교회가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높고 '쇠퇴할 것' 예상은 훨씬 낮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이는 한인교회가 다인종(Multi-Ethnic) 교회로 변화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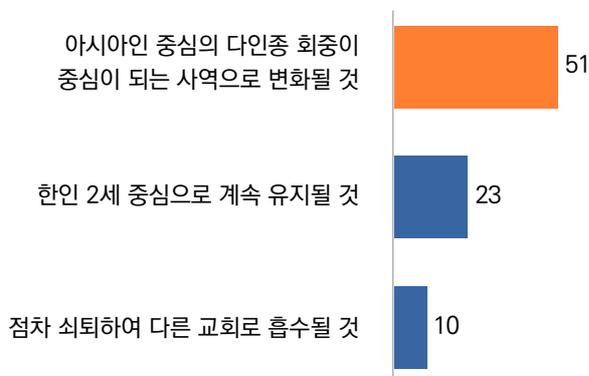
[그림] 한인교회 미래 예측(KM,EM 포함) (EM사역자, %)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 '다인종(Multi-Ethnic) 수용'이 관건!

- 미주 한인교회 내 향후 EM사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은지 EM사역자에게 물은 결과, 절반(51%)이 '아시아인 중심의 다인종 회중이 중심이 되는 사역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외 '한인 2세 중심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란 의견은 23%, '점차 쇠퇴하여 다른 교회로 흡수될 것'은 10%로 나타났다.
- 이번에는 다인종 회중에 대한 한인교회의 방향성을 미주 한인교회 교인에게 물었다. 그 결과,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인종 회중을 품고 가야 한다'가 71%로 압도적이었다. 한인교회 성도 역시 EM 사역자와 마찬가지로 한인교회의 미래는 다인종 회중을 품느냐 여부로 판가름 날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그림] 향후 EM사역 변화 예상* (EM사역자, %)



[그림] '다인종 회중'에 대한 한인교회의 방향성* (미주 한인교회 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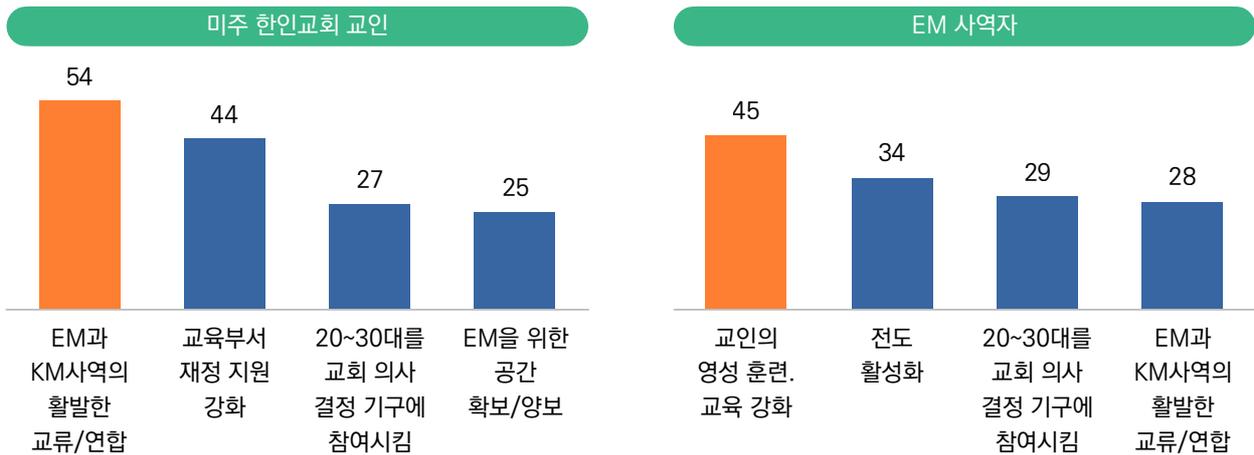


*'잘 모르겠다' 제외

한인 교회 미래를 위한 준비 사항, 'EM과 KM의 활발한 교류/연합'!

- 미주 한인교회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교인은 'EM과 KM사역의 활발한 교류/연합'이 5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교육부서 재정 지원 강화(44%)'로 나타났다. 반면 EM사역자의 경우 '교인의 영성 훈련, 교육 강화'가 절반 가까이(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도 활성화(34%)'였다.
- 종합해 보면, 내부적으로는 EM과 KM사역의 교류와 연합이 필요하며, 영성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여 교인의 영적 갈급함을 충족시키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그림] 소속 교회 미래를 위해 필요한 준비 (1+2순위, 상위 4위, %)



이번호 요약

1. KM사역 쇠퇴 이유,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 훨씬 커!

- 교인과 EM사역자 모두 KM사역의 미래에 대해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 KM사역의 쇠퇴 이유는 ‘이민자/유학생 감소’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교회의 시대흐름 뒤쳐짐’, ‘교인의 신앙 약화’, ‘세속화’ 등 내부적 요인이 더 컸다.

2. 교회/목회자에게 기대사항,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

- 한인교회 교인들은 교회 쇠퇴 요인으로 ‘교회가 시대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이와 연결되어 교인들은 교회에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3.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 다인종 수용이 관건!

- EM사역자들은 한인교회 내 EM사역에 대해서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 높았는데, 그들은 KM과 EM을 포함한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 향후 EM사역은 다인종 회중이 중심이 될 것이며,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해 다인종 회중을 품어야 한다는 의식이 EM사역자, 교인 모두에게서 높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2024 미주 목회 인사이트 - 한인교회 들여다보기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 [\[칼럼\] 차세대 사역위한 가이드 미주 한인교회와 다음세대 사역에 관한 고찰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관련 성경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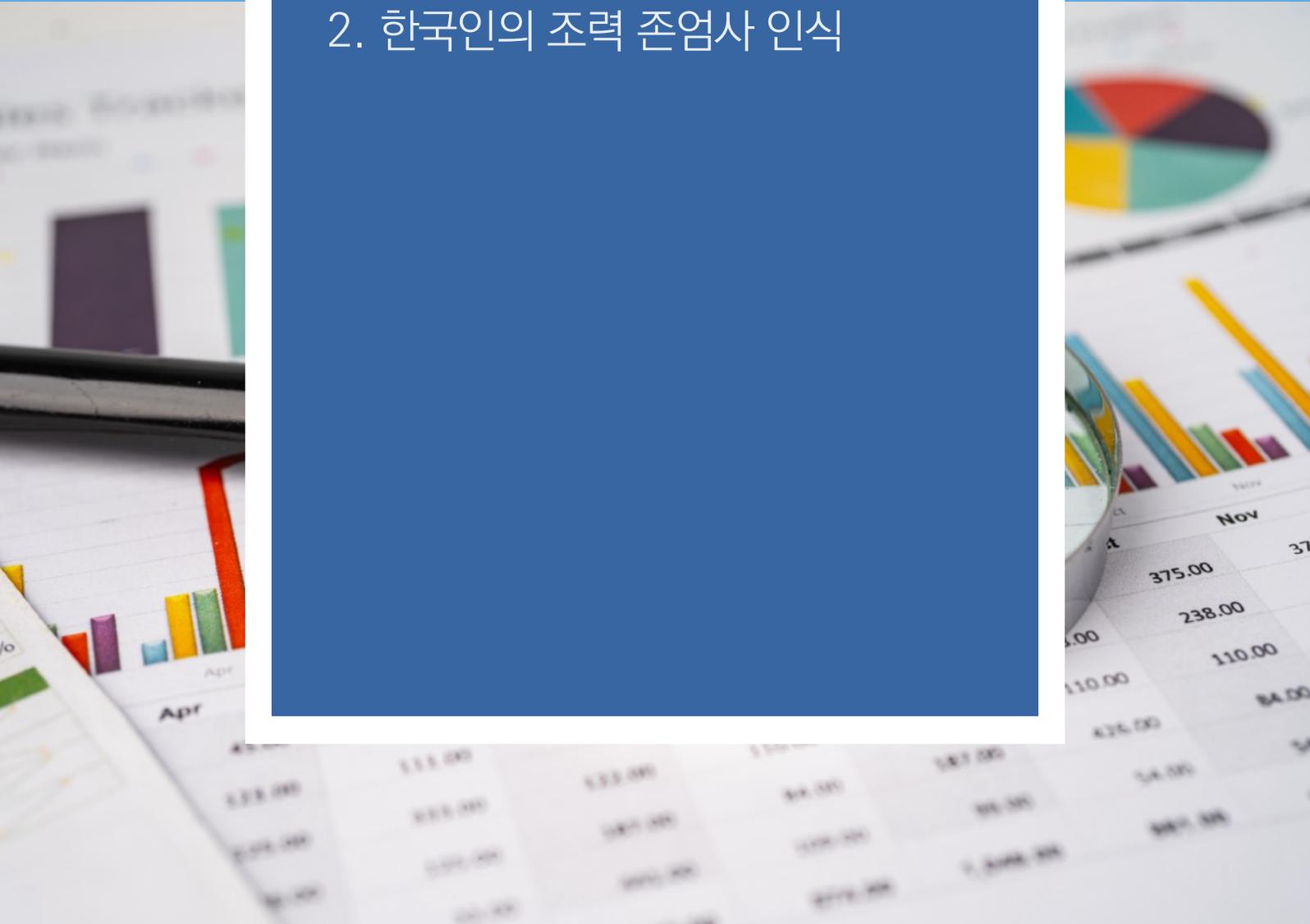
미주 한인교회를 위한 목회 적용점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교회가 쇠퇴할 것 같다는 비관적 인식을 갖고 있다. 그 이면에는 이민자/유학생 감소 요인이 컸다. 그러나 교인들은 쇠퇴 이유를 내부 요인으로 돌렸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교회의 세속화, 교인의 신앙 약화를 이유로 꼽았다. 이러한 인식은 한인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영리든 영리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요인으로 인식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미주 한인교회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한다.

구체적인 사역 방향으로는 교인 영성훈련과 교육이 시급하다. 한인교회 교인의 영적 갈급함은 한국보다 크게 높았다. 또한 전도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 한인사회 내 비 개신교인이 아마도 70-80%는 족히 될 것이다. 어장이 크고 넓다, 이민자/유학생 없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는 열정이 필요하다. 목회자의 전도 열정이 높을수록 교회의 전도 성과가 높다는 결과가 있다.(넘버즈 244호) 소그룹을 전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친교 중심의 현재 소그룹을 전도의 거점 기지로 새로 정립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1세기의 역사를 지나 성장통을 겪고 있는 미주 한인교회의 변화와 성장을 응원한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의 자영업 실태
2. 한국인의 조력 존엄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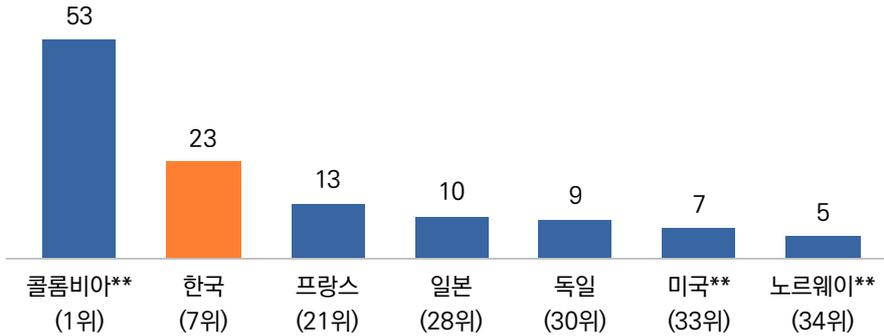


[한국의 자영업 실태]

한국 근로자의 자영업자 비중, 미국/일본보다 2배 이상 높아!

- 한국은 자영업 공화국이란 말을 심심치 않게 듣는데 실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OECD와 통계청 발표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3%로 미국(7%), 일본(1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통계가 있는 OECD 34개국 중 7위로 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OECD 주요 국가의 자영업자(비임금 근로자)* 비중 (2022, 34개국)



※출처 : 연합뉴스, '한국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 비중 23.5%...OECD 7위', 2024.01.08.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7034200030>)

*비임금 근로자(Self-Employment) :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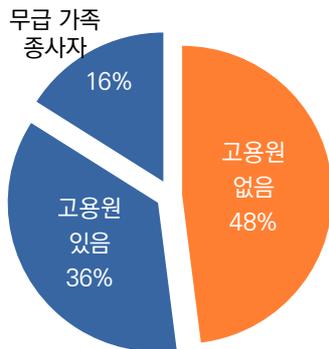
**2021년 자료

Note) 2022년 한국 비임금 근로자 비중(23%)=자영업자(20%)+무급 가족종사자(3%)

자영업자 2명 중 1명, 나홀로 사장!

- 이번에는 '자영업자 경영 환경' 조사 결과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최근 경영 상황을 살펴본다.
- 현재 고용원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자영업자 절반가량이 '고용원이 없다'고 응답해 자영업자 2명 중 1명(48%)은 '나홀로 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무급 가족종사자(16%)'까지 포함하면 자영업자의 3명 중 2명(64%)이 유급 고용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림] 고용원 여부 (자영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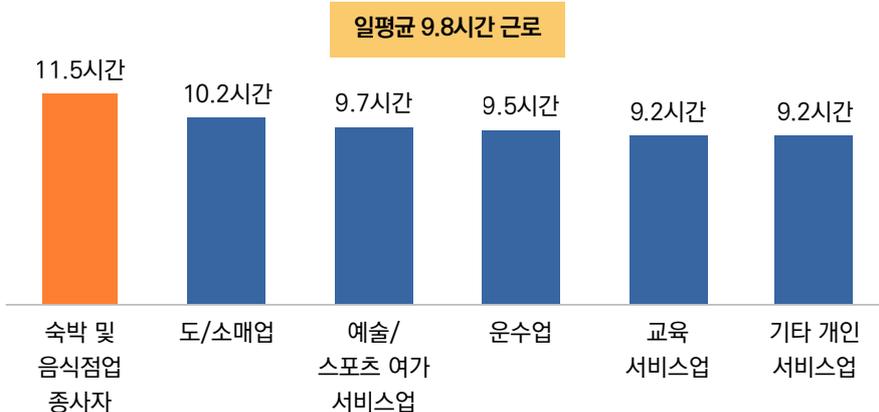
※출처 : 베틀시장 보도자료(뉴스와이어), 베틀시장 조사,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나홀로 사장... 하루 평균 10시간 일하고 월 2회 쉰다, 2024.05.22.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90109>)

자영업자, 하루 평균 10시간가량 일해!

- 자영업자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물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가 11.5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도/소매업(10.2시간)’,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9.7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일평균 근로시간은 9.8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일주일에 1일만 쉰다고 가정하면 주 59시간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기준 최대 근로시간(52시간)보다 7시간이 많은 근로량이다.

[그림] 일평균 근로시간 (자영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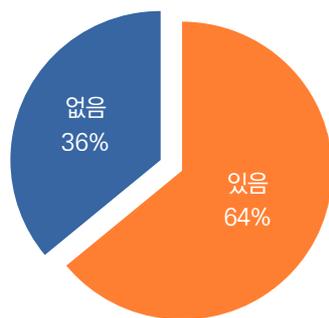


※출처 : 벚룩시장 보도자료(뉴스와이어), 벚룩시장 조사,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나홀로 사장... 하루 평균 10시간 일하고 월 2회 쉰다, 2024.05.22.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90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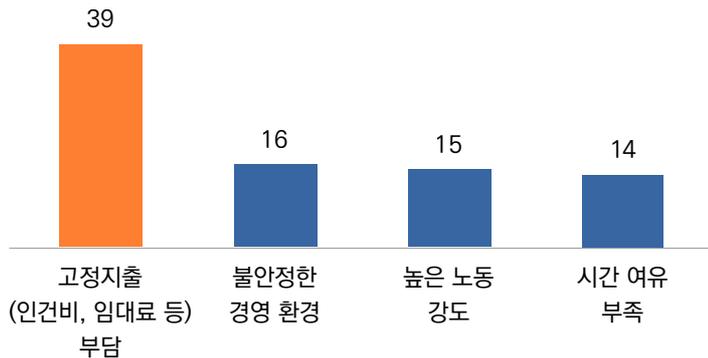
자영업자 3명 중 2명, 휴업/폐업 고민한 적 있다!

- 자영업자들에게 최근 1년 사이 휴업 또는 폐업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자영업자 3명 중 2명 정도(64%)는 ‘있다’고 응답했다.
- 이들이 휴/폐업을 고민한 이유로는 ‘고정지출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 외에 ‘불안정한 경영 환경’ 16%, ‘높은 노동 강도’ 15% 등의 이유를 꼽았다.

[그림] 휴업/폐업 고민 여부 (자영업자, 최근 1년 기준)



[그림] 휴업/폐업 고민 이유 (휴업/폐업 고민 경험 자영업자,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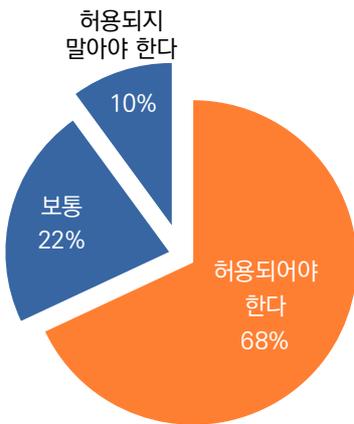
※출처 : 벚룩시장 보도자료(뉴스와이어), 벚룩시장 조사,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나홀로 사장... 하루 평균 10시간 일하고 월 2회 쉰다, 2024.05.22.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90109>)



[한국인의 조력 존엄사 인식]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조력 존엄사’ 허용 찬성!

- ‘조력 존엄사’란 오랜 시간 치료를 받는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최근 고통을 덜기 위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라는 차원에서 존엄사가 허용된 나라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종교적·윤리적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2022년 6월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되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계류 중이던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 조력 존엄사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웰다잉 인식과 정책’ 조사 결과(한국일보·웰다잉문화운동·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가량(68%)은 조력 존엄사 허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조력 존엄사 허용 인식*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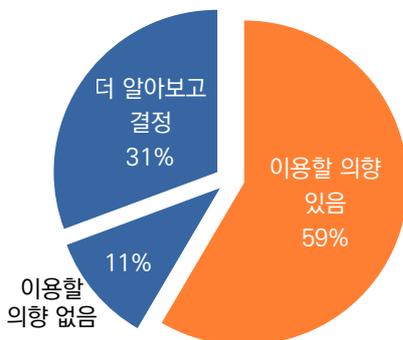
※출처 : 한국일보·웰다잉문화운동·한국리서치, ‘웰다잉 인식과 정책’, 2024.06.25. (전국 19세 이상 남녀 2,015명, 한국리서치, 2024.05.16.-05.2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622280000576>)

*5점 척도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조력 존엄사 의향 있어!

- 조력 존엄사가 허용됐을 때 이용할 의향에 대해서는 ‘있다’ 59%, ‘없다’ 11%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이용 의향을 보였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조력 존엄사 허용시 이용 의향 (일반 국민)



※출처 : 한국일보·웰다잉문화운동·한국리서치, ‘웰다잉 인식과 정책’, 2024.06.25. (전국 19세 이상 남녀 2,015명, 한국리서치, 2024.05.16.-05.2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622280000576>)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89호 \(2024년 7월 1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등

사회 일반

[더 불행해진 한국인들...국민 74% "최근 1년 정신건강 문제 경험"](#)

연합뉴스_2024.7.4.

[젊은 남녀 이념 격차도 K가 최고?... "한국만큼 뚜렷한 곳 없다"](#)

국민일보_2024.7.3.

[결혼 6일만에 가출한 2000년생 베트남 아내... '공개수배'한 남편](#)

조선일보_2024.7.3.

["출산율 1.0명 회복해도 2070년 생산가능인구 절반 줄어"](#)

동아일보_2024.7.8.

[2024 현대인의 꿈, 적성 및 인생 목표 관련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4.7.3.

[부자들만 물려받나요?...중산층의 생각이 달라졌다](#)

노컷뉴스_2024.7.3.

청년 · 청소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우울 유발하고 교우관계에 악영향"](#)

연합뉴스_2024.7.7.

["초5가 고2 수학 푼다"...'초등 의대반' 선넘은 커리큘럼 충격](#)

중앙일보_2024.7.1.

경제 · 기업

[5대은행 가계대출 나홀새 2.2조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

연합뉴스_2024.7.7.

["회사 밖은 지옥" 후배 리더 아래서 버티는 엘더](#)

조선일보_2024.7.8.

["연차요? 제가요? 왜 내요?"...몰래 '조용한 휴가' 가는 그들](#)

중앙일보_2024.7.1.

[韓 금융소비자 60% "실직 땀 가족 생계 유지 곤란"](#)

매일경제_2024.7.5.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공휴일 황금연휴’ 찬반 논란…“내수진작” “경제적 손실”](#)

중앙일보_2024.7.8.

[대기업CEO 나이, 4년 전보다 1.1살 많아져](#)

데이터숨_2024.7.3.

국제 · 환경

[90세 운전자에 모녀 사망하자 부랴부랴... ‘노인운전 천국’이 마련한 해법은](#)

매일경제_2024.7.5.

[20년 만에 새 지폐 발행한 일본 들썩...5대 궁금중](#)

매일경제_2024.7.3.

건강

[건강 및 약물복용에 대한 조사](#)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4.7.3.

[국내 '중증 아토피' 앓는 소아청소년, 8년 새 2배로 급증](#)

노컷뉴스_2024.7.8.

기독교 · 종교

[美 성도 10명 중 7명 “기독교인 향한 인식 나빠져 걱정” 이유는 ‘신행불일치’](#)

국민일보_2024.7.4.

[온 세대가 드리는 예배... 영성도 ‘플러스’](#)

국민일보_2024.7.6.

기획기사 : [위험수위 다다른 국민 정신건강], 중앙일보(중앙선데이)

[재난·참사, 전세사기 악몽, 집단 따돌림...트라우마 출구가 없다](#) _2024.6.22.

[전문성 확인 안 된 심리상담 자격증 5000개 난립...인력양성, 관리 체계 개선해야](#) _2024.6.22.

[우울에 빠진 대한민국 \[위험수위 다다른 국민 정신건강\]](#) _2024.6.22.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 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벚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마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재)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3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시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원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